

종교간대화 심포지엄

다종교 사회인 한국, “우리는 어떻게 이웃종교인을 만날까?”라는 질문이 아직도 어색한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로운 해답찾기를 시작합니다.



“대화, 선입견을 넘어 이웃이 되다”

2013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709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목차

진행: 최상도 교수(영남신학대학교)

인사 조경열 목사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기도 맡은이

- 토론**
1. 한국 보수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간 대화
 - ▮ 발표: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 논평: 이정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2. WEA(세계복음주의연맹)를 중심으로 본
복음주의권의 종교간 대화의 정책과 기준
 - ▮ 발표: 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 ▮ 논평: 김은규 교수(성공회대학교)
-

전체토론 다함께

(발표1)

한국 보수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간 대화

김동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종교간 대화의 문제는 보수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예민한 주제이다. 보수기독교의 정서상 종교간 대화는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이며, 금기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가장 논쟁적인 신학이 해방신학과 종교다원주의라면, 신학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불러 일으킨 해방신학보다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간의 대화의 문제는 보수기독교가 다루는 최종적인 신학적 주제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종교간 대화의 문제가 논쟁적인 주제라 하여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는 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이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공중질서를 해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혐박성 전도활동에 전념하는 전도자들이나, 법당에 난입하여 불상을 훼손하고 예불(禮佛)을 방해하면서 저주기도를 외치며 국보급 불상이 불타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쓰나미와 지진으로 천재지변을 겪은 타종교 국가의 희생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목회자들의 폭력적인 설교 등은 종교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해 무례한 종교요, 폭력적인 종교임을 드러내준다. 종교간 대화의 문제는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타종교안에서 기독교선교와 타종교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새로운 성찰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가 아닐까 한다.

I. 보수기독교에게 종교간 대화는 왜 어려운가?

1. 보수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제로서 기독교의 절대성(Absolutism of Christianity)

보수기독교에게 종교간 대화란 근본적인 전제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수기독교의 신학적 사고에는 전제주의(前提主義) 성향이 있다. 그 전제 중의 하나는 기독교는 절대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종교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화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명료한 진리로 전제된 것으로 거의 교의(dogma)와 규범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보수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절대성과 타종교의 비진리성은 이미 전제된 사항이라면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한스 쾅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된 절대적 종교, 즉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동일한 권리로 인정할 수 없는 종교로 이해한다. ... 이러한 다원주의는 다른 그 어느 종교보다도 그리스도교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 보다 큰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그리스도교가 하듯이) -이슬람조차도- 자신이야말로 참 종교요, 살아있는 신의 유일한 타당한 진리라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때때로 그리고 2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대적 관계에 있는 종교들 사이에 다원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요, 그리스도교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이다"(K. Rahner).

보수교회에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오직 예수'의 종교이다. 보수적이든, 덜 보수적이든 적어도 복음주의적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원의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고 고백한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나 다른 종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복음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보수기독교에게 다음의 성경본문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지지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갈 1:7-9).

따라서 보수기독교에게 종교간 대화란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라는 질문과 같다. 이러한 전제 앞에서 종교간 대화는 쉽지 않으므로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수기독교가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타종교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기본전제가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수기독교가 종교간 타종교와 대화에 접촉불가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절대성에 기인한다. 그럼, 왜 보수기독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신봉하는가?

첫째, 기독교가 유일구원의 종교요, 절대 진리라는 확고한 교리적 전제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전제는 기독교는 참된 종교요, 타종교는 거짓된 종교라는 논리를 설정하게 된다.

둘째, 한국 보수기독교는 유럽 기독교처럼 근대적 계몽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보수기독교는 기독교교리, 신앙고백, 그리고 신학을 수용함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보수기독교는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강한 자의식을 지녔지만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상대성에 관해서는 사고할 기회가 전무했다.

셋째, 한국 보수기독교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그리고 플레랑스적 이해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아직까지 한국기독교는 자신의 종교를 객관화하여 상대화하여 바라보는 지적훈련을 거치지 않았다. 다양한 기독교신앙과 신학과 소통하는 과정이 결여된 환경은 유럽의 기독교와 다르게 폐쇄적인 형태로 고착시키도록 하였다.

2. 종교관과 구원관에 있어서 배타주의(exclucivism)

보수기독교는 종교일반 혹은 타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수기독교는 타종교를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보수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며, 타종교는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다른 종교에도 최소한 일반적인 진리가 있으며, 더구나 일반적인 구원의 길이 있으며,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완성이며, 수렴점으로서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포용주의(inclucivism)의 관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주문이다. 보수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배타주의 입장에서 있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가증스러운 것이며, 멸망당할 적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극단적인 열성과 기독교인들은 범당난입이나 불상훼손, 그리고 단군상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을 분출한다. 물론 배타주의 입장을 지닌 보수기독교인이라 하여 모두 이러한 극렬한 행동에 뛰어들거나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보수기독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친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수기독교인들이라 하여 타종교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타종교에 대한 비상식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편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타종교에 대해 포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범상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종교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배타주의 입장에 서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교를 바라보는 보수신학적 관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보수기독교가 바라보는 종교에 관한 신학적 관점 역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관점에 따라 종교간의 대화에 긍정적인 여지가 있기도 하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보수기독교가 바라보는 종교란, 신을 발견하도록 인간 안에 심겨진 어떤 자연적 종교능력이나 종교적 성향으로 내세에 대한 동경이나 신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는 매개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불경건과 불신앙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의 종교는 말 그대로 우상숭배요, 하나님께 역행하는 불경건이며, 척결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종교 혹은 종교성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파악할 경우, 종교 일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데 한국 보수기독교에게 종교란 ‘일반계시로서 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로서 종교’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수기독교에서 종교란 배척되고 멸망받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수기독교는 일반계시를 신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배타적 계시론의 입장에서 서 있게 된다. 그래서 일반계시를 거의 대부분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어, 자연만물 속에 신성의 흔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정도일 뿐,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의 수단 중에는 인간의 양심(도덕성), 문화, 역사, 그리고 종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

반계시의 범위를 ‘종교’까지 포함하는 것은 개신교 정통주의 교과서까지도 지지하고 있다.¹⁾ 한국보수기독교가 교의학교과서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의 조직신학은 일반계시에 관한 항목에서 “성경은 이방종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또 그것들을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짓종교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들안에 참된 요소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²⁾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보수기독교가 칼 바르트신학을 자유주의신학으로 치부하면서도, 유독 바르트의 배타적 계시관, 즉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접촉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그의 입장은 두둔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인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시관은 타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보수기독교의 신념을 지원하는 신학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르트의 배타적 계시관은 일반계시를 수용하는 정통 개혁주의 계시관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보수기독교의 종교관은 신학적으로 정립된 입장을 보유하고 있기보다 이미 확정된 교의적(dogmatical)이며, 정경적(canonical)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보수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이유는 기독교론중심주의(christocentrism) 혹은 기독교론일원주의(christomonism)에 기인한다. 보수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철저히 믿는다(물론 기독교론중심주의 혹은 기독교론일원주의가 보수기독교만의 관점이 아니다). 성경적인 신학과 복음주의 정체성에 기반한 기독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고백한다. 이런 경향은 철학과 신학, 창조와 구원, 구속사와 세속사를 동일시하지 않고 가능한 격리하여 비상관적 방법을 구사하는 기독교일수록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수신학은 창조보다 타락을 강조하고, 타락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전도적 신학에 집중하므로 종교간의 대화에 반대하는 특징을 띠 수 밖에 없다.

보수기독교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고백하는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고, 그 외에 다른 종교를 거짓이다. 종교란, 즉 타종교는

1)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상권, 권수경, 이상원 역,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42; 밀라드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권, 신경수 역,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177;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431-438. 루이스 벌코프는 미국의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자로 그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1941)은 출간 이듬해에 장로교 보수신학자인 박형룡에 의해 번역, 소개되었으며, 1978년부터 고영민에 의해 본격적으로 번역되어 한국보수장로교신학에서 거의 표준적인 교의학 교재로 30년 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김동춘, “한국개혁신학의 패러다임”, in 국제신학, 제12권(2010), 39.

2) 루이스 벌코프, 상권, 142.

단지 구원의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보수기독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연종교도 아니며, 또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종교라고 본다. 반면 자유주의적 진보기독교는 기독교 역시 인류역사의 과정에서 형성된 종교문화의 형성물이라고 간주하므로 기독교의 절대성보다 종교적 상대성에 관해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결여

기독교적 맥락에서 다원주의란 이 세계 안에 기독교세계나 기독교적인 삶과 생활 양식,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와 규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 비기독교세계가 존재하며, 기독교와 다른 각각의 가치, 신념, 문화가 존재하며 그 다름과 차이,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보수기독교는 이러한 다원주의 논의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한다. 기독교적 사고에는 사물의 실재는 여럿(多)이라는 다원주의(pluralism)보다는 사물의 실재는 하나(一)라고 하는 일원론(monism)적 경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전개되어 온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의 흐름은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반한 방향으로 구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서방 기독교 신관은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관계성을 함축하는 삼위일체론보다는 하나님의 단일성(eness)을 강조하는 유일신론(monarchianism)을 강화해 나갔다. 역시 서방교회의 교회론은 구원의 교회론적 중심점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라는 정식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기독교론적으로는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부분으로 명시되어왔다. 이러한 일원론적 교리체계는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발전되어 한 하나님-한 황제-한 교회-한 제국을 그려내었다. 더구나 기독교세계, 즉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유산은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세계 내에서 기독교의 유일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나간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교리적 유산과 역사적 족적을 근거하여 볼 때, 기독교적 사고 안에 다원주의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기독교 단일사고는 비단 보수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권 전체에 형성되어 온 흐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고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에서 상당히 낮은 사고이다. 기독교일반도 그렇지만 보수기독교는 더더욱 현실로서 다원주의(서술적 다원주의 descriptive pluralism)와 규범으로서 다원주의(규범적 다원주

의 normative pluralism)를 구별하여 사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계에는 하나의 실재만이 존재하지 않고 여럿이 공존하고 있다는 서술적 다원주의와 그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그 여럿인 각각은 제각각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규범적 다원주의를 구별하여 선택적으로 사고할 만한 지적훈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다원주의 도전 앞에서 한국 보수교회가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원주의토론이나 다원주의에 대한 개방적 시각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의 상대화를 가져오고 중국에는 종교혼합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보수기독교도들은 석탄일에 개신교 대표인사나 천주교 신부가 사찰을 방문하여 축하인사를 하거나, 성탄절에 스님이 교회와 성당을 방문하며, 종단 대표자회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종교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종교간의 공존을 시위하는 포용적 태도에 대해 안정감을 갖기보다 기독교가 종교혼합주의로 흐를 것이란 위기감을 느끼며 분노감을 표출한다. 그리하여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종교학의 한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중국적으로 복음의 절대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체로 근본주의 성향의 기독교가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모든 토론을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보수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원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다원주의(정치적 다원주의, 인종적 다원주의, 인식론적 다원주의)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보수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분석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나 그리스도중심적 종교다원주의 등에 관한 차이점이나 토론의 쟁점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원주의 사고는 모든 사회윤리적 현안에 대한 판단논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계에서 민감하게 부상한 신학적, 사회윤리적 주제들, 예를 들어 WCC 찬반, 반공이데올로기, 동성애 등등에 대해 신학자나 교계지도자들의 판단의 이면에는 다원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단선적 사고방식이 익숙해 있고, 내가 속한 군집과 집단논리, 즉 진영논리에 충실한 보수기독교에게 종교간 대화와 종교다원주의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I. 한국 보수기독교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진보기독교의 보수기독교에

대한 이해

1. 종교간 대화보다 진보/보수간 대화도 선결되어야 한다.

종교간의 대화란 보수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기독교 역시 보수기독교와 대화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종교간의 대화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먼저 보수와 진보기독교와의 대화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기독교는 종교간 대화 자체를 거부하려 하고, 진보기독교는 보수기독교를 진지하게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오늘 이 토론이 에큐메니칼권 측이 보수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간 대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우선 보수기독교의 신앙 고백,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의 대부분 진보 에큐메니칼권에서 보수기독교의 신학적 사고, 행동양식, 논리를 향해 사용하는 언어는 ‘근본주의 기독교’(fundamentalistic christianity)라는 단어 하나로 싸잡아 비난하거나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수기독교는 근본주의 기독교의 유형과 가장 근친적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기독교가 보기에 진보를 표방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그룹은 근본주의로 몰아세울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히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한국 보수기독교를 ‘근본주의’라는 단일한 카테고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묻고 싶다(물론 이 점은 보수신학이 자신들과 자그마한 편차가 있는 다른 신학을 향해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이다).

나는 평소에 진보 에큐메니칼진영이 보수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보수기독교가 타종교를 대하는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이러한 모습은 매우 경박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있는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 대한 존중감없는 불쾌함만을 줄 것이며, 바로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대화’ 불가능한 접근이라고 본다. 대화는 보수기독교도 결핍된 것이지만, 진보기독교가 보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허다하다.

진보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 신앙태도에 대한 자부심과 지성적 우월감을 유지하면서 보수기독교를 향해 더 계몽되어야 할 딱 막힌 꼴통보수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보수기독교가 보기에 진보기독교는 ‘담을 허는 여우’처럼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허물고 복음을 떠나려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상호간의 편견없는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보수기독교의 신학적 근거들

종교간 대화에 있어서 보수기독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의 보수기독교는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보수기독교는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자영감설적 성경무오설을 견지한다. 구원관에 있어서 예정론이나 제한속죄를 분명하게 믿는다. 칭의론에 있어서 의화(義化)가 아니라 칭의(稱義)로 이해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적인 전가이지 그리스도인 안에 의의 창조나 내재적인 의가 아니라고 사고한다. 구원과정에서 신입협동설적 관점을 배격하면서 하나님 절대주권과 불가항력적 은총에 의한 구원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수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할 인간의 원형이라거나 인간됨의 모범이라는 것을 배격하며 택함받은 신자들의 죄의 용서, 대속을 위한 구속주로 고백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해방이나 인간됨의 진보를 구원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형벌대속론을 근거로 하여 죄사함으로서 구원을 중시한다. 보수교회는 교회의 사명이란 오직 영혼구원에만 있으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윤리적 관심사에 대해 매우 희박한 비중을 둔다. 그들은 영혼구원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하나님나라의 성장과 진보라고 보며,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론이나 에큐메니칼적 활동을 반대하는 편이다. 따라서 인권, 정의, 평화, 빈부격차,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참여를 배격한다. 종말론에 있어서 보수교회는 이 땅위에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문화는 멸절된다고 생각하므로 현세에서 교회의 사회책임적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래의 천국과 현세의 나라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없다.

3. 보수기독교와 진보기독교의 경계선은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가?

보수기독교라 하더라도 신학적 관점, 신앙고백, 행동양식을 표현하는 양상이 다양하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교리적 보수주의자는 사회-정치적 보수주의자로 동일시된다고 간주된다. 다시 말해 보수신학을 견지하는 그룹은 보수적 윤리관을 지닌다는 공식이다. 그리고 당연히 종교간의 대화는 아예 접근불가의 문제로 설정한다. 이런 논리적 연결구도는 어느 정도 혹은 대부분의 경우 타당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학적 입장이나 교리적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정치관과 경제관은 역으로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성 윤리(동성애, 이혼, 등)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지닌 보수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적 사회관을 지닌 보수기독교인들은 종교다원주의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회, 정치관이 아니라 교리적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기독교에도 근본주의적 보수주의가 있는가 하면, 사회구조의 변혁과 정의, 평화, 인권과 같은 인간화를 추구하는 복음화와 선교에 동의하는 포용적 보수주의가 있으므로 보수기독교를 접근할 때 어느 정도 구별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종교간 대화에 대해 한국 보수기독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1. 근본주의 방식의 선교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 보수기독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무례한 태도, 물량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방식(자주 언론에 노출된 몰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신앙양태들)을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선교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는 십자군적 선교방법론, 즉 전투적이며, 정복적 방식의 선교와 선교의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개종주의 선교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선교방식에 있어서 기독교화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 인간과 이교문화를 정죄하는 시각에서 이를 복음을 위한 예비단계로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교화(教化 paideia)의 방식이 필요하다. 베반스와 슈뢰더의 선교유형론의 분류처럼³⁾, 종래의 영혼구원과 교회의 확장으로서 선교(A유형)만이 아니라 진리발견으로서 선교(B유형), 역사의 변혁으로서 선교(C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신교 선교방식은 전투적 복음에서 부드러운 복음, 즉 전복(顛覆)과 침투와 점유의 선교가 아니라 더불어 있음(Mit-Sein), 현존(現存)의 선교, 그리고 행동적 선교방식에서 존재적 선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기독교구원의 유일성과 타종교에 대한 태도의 포용성

보수기독교를 향해 기독교적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주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한 교리적 배타성과 타종교에 대한 관계방식의 포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절대성과

3) Stephen B. Bevans, Roger P. Schroeder,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 (서울: 크리스찬헤럴드, 2007), 107-177.

교리적 배타성, 그리고 기독교구원의 유일성은 붙들면서도 타종교와의 대화와 관계 형성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간의 대화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보수기독교의 입장에서 종교간의 대화란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 교리적 배타성 혹은 특이성은 견지하면서 타종교와 관계적 유연성을 형성하기
- 교리의 절대성은 견지하면서 종교로서 기독교를 상대화하기

보수기독교권 내에 ‘적대적 대화 불가론자’가 있는가 하면, ‘포용적 대화론자’가 있으며, 아마도 종교간 대화의 물꼬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종교간의 대화와 타종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즉 종교간 대화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종교간 대화의 최종적 목표점이 기독교의 진리주장을 해체하고 타종교의 그것과 자신을 상대화하여 구원의 그리스도 중심성과 최종성(finality)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기독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독교권 전체에서도 용인하기 불가능한 논의가 될 것이다. 기독교적 진리주장을 견지하는 태도를 가리켜 기독교제국주의나 기독교우월주의라는 판단을 한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추구하는 종교간 대화의 수위(水位)가 타종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보수기독교가 2013년 가을에 열리게 될 WCC 부산총회에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WCC의 종교다원주의적 혐의에 관한 부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고

그동안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태도는 참-거짓의 도식, 다시 말해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고 타종교는 거짓종교이며, 혹은 기독교는 구원종교이고 타종교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우상숭배로서 비구원종교라는 도식으로 일관했다. 이 점은 간과되지 말아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보수기독교인들도 타종교에 대한 인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수기독교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종교에 대한 양면적 관점이 상존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보수적 입장에서 있는 정통주의 개혁신학 안에서도 종교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과 ‘신성의 감지력’(sensus divinitatis)을 심어 놓았다고 말한다. 타종교도

다양한 종교적 형태를 통하여 종교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종교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햇빛이나 우로와 같은 일반은총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네덜란드 정통 개혁주의 교의학자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타종교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일반은총이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기꾼들이거나 사탄의 일꾼들이 아니라, 종교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들의 시대와 민족을 위해 완수해야 할 소명을 받았던 자들이며, 자주 백성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자들”⁴⁾이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타종교 안에 많은 오류들이 혼합되어있지만, “다양한 종교들은 어느 정도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켰으며 삶의 고통에 위로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비록 부패하였지만 종교에 근본적인 신개념, 죄의식, 구원에 대한 약속, 희생, 제사, 성전, 의식, 기도 등이 이방종교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방종교에 대해 대립할 뿐 아니라 이방종교의 완성이기도 하다”⁵⁾고 결론 내린다. 물론, 우리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타종교들에서도 일반은총이 발견되지만, 그것은 종교성이라는 보편적 본성의 추구를 의미하며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구원은 자연종교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특별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에,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은 최소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법한 사람들은 아니다. 실로, 죄인이 이와 같은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수기독교 역시 타종교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진리가 절대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진리인 만큼 타종교도 일반적인 의미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적어도 타종교인들의 종교적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열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

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438. “성경이 얼마나 심하게 이교도의 성격을 정죄하든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계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방종교에도 담겨있는 진리의 모든 요소들을 인정하도록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다.... 무하마드와 같은 종교 창시자들은 단순히 사기꾼, 하나님의 원수, 귀신의 추종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종교들이 더 상세하게 알려진 이후로 이러한 해석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36.

5)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438.

결론적으로 한스 쾨이 역설한 바 있듯이, 종교간의 평화 없이는 문명간의 전쟁이 있을 뿐이며, 종교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간의 평화가 없다. 그리고 종교들의 바탕에 대한 연구 없이는 종교간의 대화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기독교(전체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의 타종교에 대한 우월주의나 정복주의적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기독교복음을 불신자와 타종교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마저 비난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종교간의 배려와 존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선교적 사명과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소위 해체의 과정으로 흐른다면, 예민한 주의가 요청된다.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몰이성적, 독선적 태도와 행위방식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자기학대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기독교우월주의에서 비롯된 호교론적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특이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전체의 존립을 위해 보수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고집스러운 독선과 아집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 복음과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수기독교가 넌센스적인 신앙태도와 불쾌한 전도방식, 그리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선교방식을 고집하면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예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바로 그러한 보수기독교가 고집하는 그러한 행동양식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평1)

종교다원주의를 보는 다른 시각 -한 보수신학자의 고뇌를 접하며-

이정배

(감신대, KCRP 종교간 대화 위원장)

오늘과 같은 자리를 오래전부터 기다려 왔다. 종교간 대화의 자리에 나가보면 늘 같은 생각하는 학자들끼리 모여 발제자가 말했듯 근본주의적 기독교를 성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다소 식상했던 탓이다. 대체적으로 이웃종교에 대한 열려진 태도는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었고 오히려 같은 개신교 안에서의 격차가 기독교와 이웃종교들간의 차이보다 언제나 컸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소위 핵 마피아들도 기독교인들이고 반, 탈핵을 앞서 주장하는 이들도 기독교인인 것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오늘 발제자는 보수신학자로서 종교간 대화에 대한 자신의 깊은 고뇌를 적시하였다. 시대적합한 일이나 절대성을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적 속성, 곧 명제적 진리로 인해 선뜻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들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종교간 대화, 나아가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절대성을 훼손시킨다는 전제하에 본 담론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보수신학 현실을 변호할 마음도 없지 않았다. 종교간 대화의 승인을 곧바로 루비콘 강 건너기로 오독하는 교계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서구처럼 기독교이해에 있어 계몽주의를 거치지 못한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는 현실을 토로했기에 논평자는 본 발제문에서 한 보수신학자의 고뇌를 읽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발제자가 보수신학에서 종교간 대화가 왜 어려운지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절

대성에 대한 긍정은 진보신학 진영도 피해갈 갈수 없는 주제인 것을 역설하며 대화를 어려워하는 보수신학을 ‘근본주의’란 이름으로 ‘꼴통’으로 폄하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발제자는 종교간 대화를 난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보수신학의 논거를 기독교의 절대성과 타종교의 비진리성에서 보았다. 이는 보수신학의 전제(명제)적 진리로서 멀리는 성서문자주의로부터 가까이는 교조적 칼빈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성서적 진리(구원)가 절대적인 것을 몇몇 핵심 성서본문(요 14:6, 행 4:12 등)에 잇대어 확신하였고 칼빈의 예정론, 제한 속죄론을 빌어 확증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보수신학의 명제적 진리가 성서적이기보다 오히려 근대서구의 동일성 철학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서구적 기준이라는 프루테스크 칩대에 모든 것을 맞춰 동일시하려는 식민주적 잔재라는 것이다. 더구나 성서가 고백적 언어이고 비유적 언어이며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사실과 동일시되는 기호가 아니라는 것은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등을 통해 강조되었다. 칼빈조차도 하느님 영의 활동을 신뢰한 종교개혁가로서 후대의 칼빈주의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예수의 언어가 비유(Parable)란 것은 신학을 어떻게 할지를 알리는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성서신학자들이 역사비평, 편집비평, 양식비평 등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옳게 해석하려는 바 이를 명제적 진리가 방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반신학적일 수 있다.

발제자는 명제적 진리- 기독교의 절대성과 종교들의 비진리성-의 내용이자 근거로서 예수의 대속, 속죄사건을 언급한다. 진보신학자들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역설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예수의 특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대속을 달리 이해하는 시도도 얼마든지 있다. 예수의 죽음을 종교개혁가들의 시각이 아니라 로마 지배 체제하의 예수, 바울의 시각에서 달리 보자는 것이다. 즉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나라의 열정 탕으로 보고 그의 사후 그리스도안의 존재(En Christo)가 된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로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기독교인, 이방적 기독교인과 유대적 기독교인들 간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죄란 이런 ‘화해’를 위해 참여적 존재(참여적 속죄론)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선 정치와 종교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찍이 본회퍼는 기독교인은 이런 예수와 동시성을 얻는 존재로서 이들이 바로 제자인 바, 이런 삶을 사는 제자가 생기(生起)치 못한다면 기독교는 한낱 신화나 이념에 불과한 것이라 말한 바 있었다. 그렇기에 로마나 헬라, 그리고 유대 담론과 달리 그리스도 담론은 영의 구원에만 만족치 않는다. 성육신의 신비는 개인의 영적 삶에서 뿐만 아니라 강도만난 구체적 현장 속에서 재현된다는 것이 대개 진보신학자들의 생각이다.

기독교 절대성에 대한 보수신학의 주장은 자연스레 이웃종교의 비진리성 즉 배타적 구원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군/적군의 이분법적 도식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근대서구의 인식틀일 뿐이다. 인간과 자연의 전적타락을 강조하고 종말을 세상의 파멸로 이해하며 피안적 천국관을 선포하며 교회만을 구원의 방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배타성의 본질이자 내용일 것이다. 발제자는 칼 바르트의 자연신학 논쟁을 통해 일체의 접촉점을 부정한 사례를 말했으나 종교들 뿐 아니라 가시적 교회 역시도 바르트가 같은 척도로 비판했음을 언급치 않았다. 현상의 교회는 바르트에게 여타 종교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그랬기에 바르트마저 보수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매도, 비판하였을 듯싶다. 바르트의 자연신학(종교) 부정은 히틀러체제를 지지한 독일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항거였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그의 종교 및 자연신학 비판은 그와 함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회퍼에 의해 다시 부정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자연과 초자연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는 루터의 두 왕국설을 비판했던 것이다. 기독교 역시 비종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시대가 오히려 비종교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앞선 신학적 통찰인 셈이다. 이와는 다는 맥락이나 필자가 속한 감리교전통은 특수계시를 인정한다고 해서 일반계시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기독교 초기부터 ‘西洋之天即 東洋之天’이라 하여 유교와 기독교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했던 정동교회 목사 탁사 최병헌을 위시하여 유불선 종교를 부여잡고 기독교복음과 대화하며 토착화 신학을 전개했던 학문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양인보다 더 서양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한국적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서이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多夕이나 함석헌 역시 유불선 모두 하늘로부터 계시 받을 것은 다 받은 종교이나 자신들에게는 예수만이 ‘意中之人’이라며 절대성과 다원성을 함께 긍정하는 건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교란 믿는 당사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어머니는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계가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기 어머니를 의당 최고라 부르며 절대 의존한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른 어머니들을 보고 만나게 되고 비교하게도 된다. 객관적으로 더 잘난 어머니가 눈에 많이 뜨이고 상대적으로 못한 자기 어머니 모습도 발견된다. 필자의 경우 시골에서 농사짓다 자식 찾아 올라온 얼굴 검은 어머니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그 어머니가 다시금 한없이 소중해진다. 세상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절대적인 존재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기독교가 자신의 명제적 진리만을 고집한다면 사춘기 이전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종교를 의당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 믿음의 눈만이 아니라 의심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점에서 여성신학자들

은 성서가 자신들에게 돌이 아니라 빵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서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종교간 대화는 이와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른 눈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기발견의 눈이라는 또 다른 시각이다. 이는 아시아신학자 파니카가 가르쳐 준 것으로 동일한 세계관에서 태동된 종교들 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묻는 변증법적 대화가 필요하나 전혀 다른 이질적 세계관에서 발생한 종교들 간에 상호 차이를 알고자 하는 대화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성서 안에 언급된 몇몇 종교들은 예외없이 고대 근동지방 혹은 헬라적 풍토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그렇기에 그들 간에 변증법적 대화가 당연했고 그 와중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성서 안에 아시아의 종교적 세계관이 부재했음을 파니카는 적시했다. 아시아 종교들을 결코 변증법적 대화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는 신학자는 이웃종교와 만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오히려 많이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웃종교는 기독교와 결코 같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곳에 몸담아 보지 못한 우리로선 그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자신의 종교에 절대적 헌신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축구의 문법을 아는 이들에게 축구는 한없이 재미있는 게임이다. 그러나 야구의 게임 룰을 아는 이들에게 야구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재미 있다. 저마다 자기 게임 룰(종교언어)만 알기에 다른 경기(종교)가 흥미롭지 않을 뿐이다. WCC측이 오랜 숙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인을 위한 구원의 핵심이나 그의 구원활동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성서 66권 안에만 하느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폐쇄적 확신은 일견 믿음인 듯 보이나 실상 하느님을 과거 속에 가둬두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새로운 생명 종이 탄생되고 있으며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지금껏 발견된 우주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일부라는 사실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가톨릭만 하더라도 73권을 성서라 여기고 있지 않은가?

발제자는 가치(종교)다원 현상은 긍정할 수 있되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와 등가, 병존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대세이나 그것이 어떤 ‘-주의(ism)’로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것이다. 하여 서술적 다원주의와 규범적 다원주의를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근거로 보수신학이 삼위일체론을 말했으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一者)에 대한 고백에 치중되었음을 이실직고했다. 경험적으로 삼위(三位)보다는 하나(一)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탓에 복수(다원)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솔직한 고백이긴 하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본래성과 어긋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성서가 말하는 ‘하나’ 곧 유일신론(Monotheism)은 숫자적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성서가 타자 부정적인 유일신론을 강조한 것은 포로기 이후 자신들 정체성이 최고로 위협받던 시

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 고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소수자로서 정체성이 위협 받던 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백이 기독교가 다수이고 주도권을 쥐 상황에서 밖 을 향해 강요될 경우 그것은 사람 잡는 정체성이 될 수 있음을 구약학자들이 우려하 고 있다. 본래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의 유일신론과 헬라의 유일적 최고신 개념과의 싸움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고자 했다. 헬라 역시도 유대와 마찬가지로 폴리스 들 간의 싸움을 통해 최고신 개념을 확보했으며 이데아(플라톤), 不動의 動者(아리 스토텔레스)란 이름으로 발전했고 그를 제국신학의 토대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정 황에서 예수가 하느님이란 고백은 납득될 수도 수용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초대교회는 이런 유일신론과 싸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내야 했던 것이다. 이 때 돌파구가 되었던 것이 아프리카적 사유, 'I am because we are' 라는 것이었다. '우리'이기에 '나' 이며 '나 속에 우리가 있다'는 복수성(다원성)의 사유가 바로 예수를 신적 존재 로 이해할 수 있는 틀 거리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 삼위일체 교리(터툴리안) 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통치이념으로 수 용했기에 이후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三位'라는 복수성을 결국 '하나'로 환원시켜 버리는 累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오늘 발제자가 다원성, 복수성을 거부하는 보수신 학의 정서로서 '하나'를 강조한 것과 거지반 맥락이 같다. 결국 예수가 神인 것은 그 의 복수성, 다원성을 말하지 않고서는 말해질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주장인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듯 하나로 귀결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며 리즘적 사유방식을 통해 다중교리(Polydoxy)를 주장하는 추세이다. 수많은 억압된 공간들을 脫하여 그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再) 만드는 것을 성육신 신학의 본질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위일체 신학, 다중교리를 통해 성육신을 말하는 기독교신학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새창조)을 관심할 수밖에 없다.

발제자는 글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간 대화를 보수신학이 어찌 생각했으면 좋겠는 지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다행히도 개종주의적 선교의 지양을 첫 과제로 꼽 고 있다. 정복과 점유의 선교가 아니라 더불어 있음(공존)의 자각을 요청하는 것이 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키면서도 이웃종교와의 관계형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사실 종교간 대화, 종교다원주의의 제 이론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단지 절대성을 무제약성으로 개념을 달리 했을 뿐이자 자기 종교에 뭔가 부족하여 이웃종교를 기웃거리고자 함이 결코 아닌 까닭이다. 그럼에도 발제자 는 종교간 대화가 종교혼합주의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미 성서신학자 R. 볼트만이 밝혔듯 원시기독교는 본래 종교혼합주적 현상이었다. 구약성서, 유대교, 스토아철학, 영지주의 그리고 밀의 종교들이 바로 신약성서 속에 산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체성은 상실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혼합적 개방 과정 속 에서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로 꼽히는 과

정신학자 존 캡 교수도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만이 주변종교와 적극적으로 혼합적이었기 때문이라 말하였다. 문제는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것이 문제이지 자기 정체성을 더욱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혼합주의란 역사의 필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선호하지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종교 없는 영성은 가능해도 영성 없는 종교는 불가하다는 말 역시 힘을 얻고 있다. 교리란 본래 '사실 적합한' 삶의 흔적이자, 열매일 뿐 그것이 삶 자체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수행적 진리가 더욱 소중한 시대가 될 것이다. 종교들 간에도 교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종교창시자들의 정신을 더욱 구현하고 있는가를 관심하는 선한 싸움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다. 오늘과 같은 보수/진보 신학자들 간의 대화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이는 발제자도 언급했듯 보수신학계 안에서 먼저 이웃 종교들에 대해 그리고 성서 자체에 대한 계몽주의적 이해가 발생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폐쇄적 진보신학에 대한 지적도 一理 있는 것으로 겸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저마다 닫힌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까닭이다. 어려운 자리에서 난제를 부여잡고 진정성있게 발표한 발제자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미력한 소견을 피력해 본다.

(발표2)

WEA(세계복음주의연맹)를 중심으로 본 복음주의권의 종교간 대화의 정책과 기준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복음주의는 상당히 느슨하고 광범위한 운동이다.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운동 뿐 아니라, 경건주의와 부흥주의에 오순절운동까지 합세하며 제각각 신학적 강조점들도 다양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복음주의운동의 중핵을 ‘성경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규정했는데,¹⁾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신학적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좀더 복음주의의 대중적이고, 운동적인 성격을 알려면 영국의 역사가인 데이비드 베빙톤의 정리가 도움이 된다. 베빙톤은 복음주의운동의 주요 특징을 성경주의(biblicism), 십자가중심주의(crucicentrism), 회심주의(conversionism), 행동주의(activism)로 분류하였다.²⁾ 베빙톤의 정리에서 성경주의와 십자가중심주의는 교리적 보수성을 지닌다면, 회심주의와 행동주의는 모두 복음전도적 중심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우는 그룹이 복음주의적 그룹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운동은 성경과 구원론적 기독교론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이를 복음전도적 행동으로 구현하기를 우선적 과제로 지향하는 광범위한 신앙운동이라 볼 수 있다.

1) 알리스터 맥그라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IVP, 2001), 60ff.

2) David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Routledge, 1989), 2-3.

따라서 복음주의는 ‘영혼구원’이라는 전도지향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이는 지난 세기들 동안 서구의 패권주의와 맞물리면서 타종교와 문화를 개종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에토스를 낳게 되었다. 물론 복음주의신앙의 고유한 표지인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양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유일주의 신앙이 고백적 성격을 넘어서 절대주의의 오만이나 우월감으로 표현된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 복음주의협의회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반성이 있어왔고, 이제는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선적 복음전도를 넘어서는 공존적 복음전도의 양식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최근 대표적 복음주의운동 단체들의 종교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복음주의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전망하고자 한다.

1. WEA의 역사³⁾

1) 국제복음주의연맹(International Evangelical Fellowship)의 출발(1846-1951)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는 외관상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구다. 처음 1846년 영국에서 국제복음주의연맹(International Evangelical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적 대화와 협력을 고민하기에 충분했다. 산업혁명과 초기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임금착취와 어린이노동 등의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었고, 다윈주의와 막스주의가 새롭게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차 대각성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래서 1846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로 서구 국가들의 53개 기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13일 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와 회의 등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IEA의 설립 취지는 4가지 명분을 지녔는데, (1) 그리스도인의 일치, (2) 인권운동(특히,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3) 세계 전도, (4) 만민을 위한 종교 자유 등이다. 당시 모임에서는 노예제도로 인해 격론이 일어났다. 영국의 참석자들은 복음주의연맹에서 노예 소유자는 제외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결국 미국 측의 압력으로 인해 노예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기존의 영적인 일치만을 표방하는 수준에서 첫 연맹은 끝이 났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는 이 첫 연맹을 이렇게 평가한다.

3) WEA의 역사에 관한 진술은 다음의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W. D. Taylor,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Global Dictionary of Theology* ed. by W. A. Dyrness and Veli-Matti Karkainen (IVP, 2008): 949-952

노예제도와 같은 오늘날이면 전 세계 복음주의 포럼에서 5분도 안 걸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당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복음주의자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슬프고 경각할 만한 일이다.⁴⁾

그 이후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스웨덴, 인도 등지로 복음주의연맹의 지부들이 생겨났으며, 각국의 복음주의연맹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확산하며, 기도의 연대를 이루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음주의연맹에서 주로 내세우는 이슈들은 유럽, 러시아, 터키, 페르시아, 일본, 남미 등지에서 천주교와 교황제에 맞서는 저항, 종교적 자유의 옹호, 억압받는 자들의 구조 등에 맞춰졌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종 노동과 오락을 금지하는 엄격한 주일성수운동, 노예들의 해방과 그들의 아프리카 재정착을 돕는 프로젝트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2) 세계복음주의협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951-2001)

사실 복음주의연맹은 1846년 설립 이후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다. 그러다 유럽에서의 양차 대전이 끝난 뒤 다시 1951년에 네델란드의 우드쇼텐(Woudschoten)에서 복음주의연맹은 150개국의 약 60만 개 교회, 1억 5천만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세계복음주의협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된다. 이 시기는 유엔이 조직되고, WCC가 설립되는 즈음이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21개국 출신 91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WEF의 3중 목적에 분명하게 동의한다. 이는 (1) 복음의 진보(빌 1:12), (2) 복음의 변호와 확증(빌 1:7), (3) 복음 안에서의 교제(빌 1:5) 이다. 이 대회와 주요 인물들은 미국에서 풀러신학교와 고든콘웰신학교를 설립한 해롤드 옥켄가(Harold Ockenga), 영국 쪽에서는 존 스토틀(John Stott) 등이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 뒤, WEF의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복음주의운동의 세계화를 이끌게 된다. 이들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계복음주의협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WEF는 두 가지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데,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둘째는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과의 관계 설정이다. 재정적 시련은 WEF가 아무리 연합기구라 할지라도 강제성이 없는 협력을 위한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크다. 로잔언약과의 관계는 사실상 WEF의 복음주의적 대표성과 정체성을 위협할만한 본질적인 사안이었다. 여기서 로잔언약의 의의를 잠시 살

4) David Howard, *The Dream that Would Not Die: the Birth and Growth of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1846-1985* (Paternoster, 2006), 13.

퍼보기로 하자.

로잔언약은 1974년 빌리 그레함의 주도 아래 열린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였다. 빌리 그레함이 주도한 만큼, 로잔언약의 주된 기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과 토론이었다. 원래는 ‘복음화를 위한 세계 회의’(World Congress on Evangelization)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에서 270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행사였고, WCC에서도 사절단을 파송했다. 이 대회는 기독교선교를 위한 신학적 이슈들(예를 들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고, 이때에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이 존 스토틀의 편집을 통해 ‘로잔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로잔언약 가운데 가장 골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⁵⁾

- 삼위일체적 본질로 우리에게 계시되신 한 분 하나님.
-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 성령의 능력과 현존, 그리고 성령충만한 교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음전도
-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 복음전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현해야 할 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 복음전도를 더욱 재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이며 인격적인 재림
- 제자도로의 부르심, 전도사역의 긴급성, 영적인 갈등,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의 순종

로잔언약에 참석한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서 로잔언약의 사상을 전파하게 되었고,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좀더 다듬어진 신학적 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잔언약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복음과 토착화의 문제 등에 대한 후속토론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가 이어지면서 ‘로잔언약’을 주축으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교제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WEF와 같은 기존의 세계복음주의 연합기관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1951년 대회에 참여했던 이들도 제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였기에 결속력도 약화되었다. 심지어 WEF 지도자들 사이에서

5) John Reid,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in *A Dictionary of Asian Christianity* ed. by Scott W. Sunquist (Eerdmans, 2001): 471-473

도 “로잔언약 이후에도 존속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975년에 WEF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월드런 스코트(Waldron Scott)는 기구의 갱신을 단행하며, ‘복음주의’의 범주를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교위원회’(The Missions Committee)를 한국에 설립하고, 이화여대 전재옥 박사를 위원장으로 세우면서 2/3세계와 함께 하는 선교적 노력을 주된 사업으로 삼게 된다. 1982년에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가 새로운 사무총장에 오르면서 WEF는 확장성과 활력을 되찾게 된다.

하워드의 사무총장 재임 시절, WEF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견고해졌고 1987년에 WEF의 본부는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1992년에는 필리핀인인 Agustin Jun Vencer가 당선되면서 비로소 다수세계의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벤서의 사무총장 재임 기간 동안 WEF는 복음과 사회적 관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ttee)와 지도자훈련부(Leadership Training Department)를 설치한다. 9년 동안 왕성한 역량을 발휘한 벤서는 2001년 쿠알라룸푸르 총회를 끝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물러나며, WEF는 오늘의 WEA(World Evangelical Association)으로 이름을 바꾼다.

WEA는 자체 구조조정과 갱신을 위해서 인터데브(Interdev)의 게리 에드몬즈(Gary Edmonds)에게 사무총장직을 제공했으나, 에드몬즈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다시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의 사무총장인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가 취임하면서 다시 안정적인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캐나다인인 터니클리프는 캐나다복음주의연맹의 협력을 얻어내었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UN이나 G-8, 세계은행등과도 교류하고 있다.

현재 WEA의 산하에는 IT, 선교, 종교자유, 신학, 여성문제, 청소년 등의 영역들에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긴급사안에 집중하는 initiatives로 국제인신매매 방지 TF, 종교자유를 위한 국제연구소, (국제기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가 챌린지, 리더십 연구소,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TF, 평화와 화해 initiative, 국제 관용 네트워크, 창조 돌봄 TF 등이 있다.

이제 WEA는 129개국의 교회들과 100개가 넘는 교단들, 그리고 6억 명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범 지구촌 네트워크로서, 각 나라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회의 정의와 갱신을 추구하도록 돕는 국제기구임을 표방한다. 여전히 서구인들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복음주의의 개념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WEA는 점점 더 다수 세계의 문

화 및 종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공공영역으로도 진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WEA의 종교 정책

1) 종교자유위원회

WEA는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고 UN과도 연계하고 있다. 근래에는 이를 선교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로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A의 종교자유위원회의 목적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된 대상은 박해받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UN의 인권선언문 18조에서 명시하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WEA는 때로는 UN이 추진하는 다른 사안들과도 협력하며 종교 자유 운동을 펼치고 있다. UN의 종교인권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WEA의 종교자유위원회는 위의 UN인권선언문 18조와 성경적 신념에 근거해서, 주로 10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감시하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IDOP)’을 제정하며 실천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WEA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종교자유위원회의 비전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WEA 종교자유위원회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와 위협, 억압을 받는 복음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국제 정치적 후원 공동체 안에서 조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팀으로 섬기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우선적으로 WEA의 회원단체들에 부응하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수행한다.

개신교인들의 종교자유를 위한 운동이지만, 이러한 운동이 다른 국제기구나 종교단체들과 연대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들과의 동등한 공존을 인정하는 자세가 당연히 요청된다. 특히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과거와 달리 전향적으로 평화적 공존 속에서의 선교적 노력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2)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선교

2011년 6월 28일 WEA는 WCC 및 바티칸 교황청의 종교간대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독교선교의 윤리'에 관한 역사적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을 대변하는 위대 세 기구들은 5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오늘날 종교간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지구촌 현실에서 상호존중과 예의를 갖춘 선교 윤리를 천명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 공동문서는 권면(recommendations)의 형식으로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기독교 복음 증거를 위한 7가지의 성경적 기초이며 둘째는 기독교선교를 위한 12가지 원칙,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는 6가지 지침이다.⁶⁾

(1) 기독교 선교를 위한 성경적 지침

- ①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해 설명하라(벧전 3:15~1).
- ②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증인이시다(요 18:37).
- ③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본(눅 4:16~20)을 따르라.
- ④ 다원화사회에서 기독교선교는 타종교인과의 대화를 수반한다(행 17:22~28).
- ⑤ 그리스도인들의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해 증거(마 28:19~20; 막 16:14~18; 눅 24:44~48; 요 20:21; 행 1:8)하라.

6) 이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source.htm?id=288>

⑥ 기만과 강요 같은 부적절한 선교방법은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구해야 한다(롬 3:23).

⑦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만 회심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요 16:7~9; 행 10:44~47).

(2) 기독교선교를 위한 원칙들

① 기독교선교는 우월주의나 강압적 방식이 아닌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뤄져야 한다.

②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임을 선언한다.

③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

④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하라.

⑤ 섬김과 정의를 실천하라.

⑥ 분별력 있는 치유사역을 하라.

⑦ 폭력을 배제하라.

⑧ 종교자유를 수호하며, 상호존중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라.

⑨ 다른 종교와 문화의 사람을 존중하라.

⑩ 다른 종교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않는다.

⑪ 개종행위를 할 때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한다.

⑫ 다른 종교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라.

(3) 기독교선교를 위한 지침들

또한 이 공동선언문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종교간 관계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총 6개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했다.

① 이 공동문서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라.

② 종교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세우라.

③ 타종교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라.

④ 타종교 단체들과의 범종교적 시민단체 활동에 협력하라.

⑤ 종교자유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에 참여하라.

⑥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3) 공동문서에 대한 평가

WEA의 현 사무총장인 제프 터니클리프는 이 공동문서에 대한 논평에서 원래 WEA의 창립정신이었던 4가지 목표(그리스도인의 연합, 인권, 세계 전도, 종교자유)

가 이번에 공동 서명한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복음주의의 선교적 열정을 재확인하면서 “윤리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선교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증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윤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 그런 면에서 이 공동문서는 다양한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돌봄의 정신을 다시금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WEA는 이 공동문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새로운 선교적 윤리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선교의 우선성을 강조해 온 복음주의 대표기구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21세기 아젠다를 접목시키는 에큐메니칼 공동문서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주의의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화해’(reconciliation)를 복음과 진리의 주된 의제로 상정하고 합의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 화해 뿐 아니라, 종교간 화해의 모색까지 함축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축이 서구 북반부에서 다수세계 남반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그 동안 WEA 내부에서 종교간,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평화롭고 상호 존중적인 교류를 주장해 온 복음주의 선교학자 릭 러브(Rick Love)는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3대 기구가 기독교선교의 윤리에 대해서 합의를 한 역사적 사건 자체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극찬한 바 있다. 릭 러브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종교간 원활한 교류를 위한 신중한 분별력을 요청하곤 했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다종교 상황의 선교사들에게 전하기도 했다.⁸⁾

1. 전도자는 자신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뿐, 타 신앙을 공격하지 않는다.
2. 개종자를 승리의 전리품인양 타 종교인들에게 공적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공동선언문이 그가 평소 주장해 온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타종교 선교정책과 일관되는 것이라고 하며, 범 복음주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한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이 공동선언문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 과제임을 표명했음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이 문서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복음주의자들에게 충분한 의의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 공동문서를 실천하는 것은 더욱 더 큰 기적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단언한다.⁹⁾

7)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source.htm?id=289>

8)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source.htm?id=529>

3. 종교간 관계에 대한 복음주의의 태도

지금까지 WEA의 선교와 종교간 관계에 대한 역사적 입장을 고찰해왔다. 전통적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WEA 또한 근래에 이르러 기독교 우월주의적 선교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 가운데서의 선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다원주의상황에서 타 문화와 타 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에 부응하는 대처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WEA의 전통적 정책적 일환이기도 하다.

선교와 전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주의권에서 이러한 WEA의 입장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필자는 최소한 온건한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도중심적인 신앙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가 확립되어 왔다고 본다. 예를 들어,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선교신학 교수인 찰스 밴 앵겐은 그의 책에서 타종교와 타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취하는 전통적 입장을 배타주의(exclusivism), 포용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로 정리한 뒤, 가장 보수적인 극단에서 있는 배타주의를 복음주의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제 4의 입장으로서 '전도주의'(evangelist)로 명명한다. 그는 종래 복음주의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입장이 타종교를 폄하거나 배척하는 서구 문명 우월주의적 성향을 지녔음을 비판하며, 전도주의적 입장을 제시하며 이와 차별을 기한다.¹⁰⁾

밴 앵겐에 의하면, 전도주의적 관점은 신앙에 있어서는 독특성을 견지하며(faith-particularist), 문화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이며(culturally pluralist), 교회적으로는 포용성(ecclesiologically inclusivist)을 지닌다. 신앙적 독특성이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일무이한 본질을 말하며, 문화적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서구문화에 의해서 채색된 통념적 기독교가 아닌 각 토착문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기독교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역사와 세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만민을 위한 공동체라는 의미이다.¹¹⁾

밴 앵겐의 이와 같은 입장도 21세기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의 평화롭고 관용적인 공존을 전제로 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의 에토스를 견지하고 조

9)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source.htm?id=294>

10) Charles Van Engen, *Mission on the Way* (Baker, 1996), p. 179.

11) Ibid., pp. 179-181.

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WEA나 로잔, 그리고 범 복음주의권의 선교적 인식은 종교간 정책과 대화에 있어서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라는 원칙 아래서 발전적 모색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종교의 자유 또한 존중해줘야 하는 성경적 '황금률'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수년 전 부산의 한 교회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 집단기도를 한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었다.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의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성기도를 하면서, 각 구의 사찰 수를 열거하며 사찰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이 장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터넷 곳곳에서 회람이 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기독교의 무례성과 편견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특히 선교와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난 데에는 안티 기독교인이나 비협조적인 언론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구 복음주의권 또한 그간의 패권주의와 우월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해서 반성하며,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엡4:15)고 권한다. 이제 복음주의권의 전도적 열정에 사랑과 긍휼, 그리고 타인에 대한 환대라는 성경의 근본적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리라 전망한다. 그와 같은 긍정적 전망에 비추어 거룩한 공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진솔하게 논의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2)

“WEA(세계복음주의연맹)를 중심으로 본 복음주의권의 종교간 대화의 정책과 기준”을 읽고

김은규
(성공회대학교 구약학)

오늘 이 자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가까우면서도 서로 먼 존재’로, 어쩌면 지난 반세기 넘도록 그렇게 지내온 듯하다. 같은 교회, 같은 성경,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면서도, 어쩌면 서로 다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김선일 교수님의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평가, 그리고 성찰적 견해를 밝힌 것은, 그동안 두 진영 간에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간극을 다시금 좁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논평자는 이 자리에서 WEA문서나 WCC문서에 나오는 정책이나 방향들을 보면, 많은 부분 공통의 지향점들이 있다고 본다. 이미 WCC는 1961년 복음선교위원회(CWME)가 들어와 복음주의와 포괄적인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를 통해 세계복음주의(WEA)의 맥락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첫째, IEA의 설립(1984년) 취지에는 (1) 그리스도인의 일치, (2) 인권운동(특히,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3) 세계 전도, (4) 만민을 위한 종교 자유 등 4가지 명분을 지녔다고 하는데, 복음과 상황을 같이 아우르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산업혁명과 초기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임금착취와 어린이노동 등의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었고, 다윈주의와 막스주의가 새롭게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둘째, UN의 인권선언문과 연계하여 WEA의 종교자유운동을 펼치고 있다.

셋째,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선교에 대한 언급에서, 종교자유와 종교간 대화에 대한 지침들을 언급.

넷째, WEA가 기독교우월주의적 선교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 가운데서의 선교, 정의와 평화라는 21세기 주제를 수용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초기 시대에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가,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기독교는 국가종교로 되었고, 유대교는 중세와 19세기 말까지도 기독교로부터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는 유럽제국들의 종교가 되어 이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 십자군전쟁, 5백여 년 넘게 식민지 약탈에 일조하는 제국의 종교로 지내왔다. 현재에도 기독교는 유럽, 미국, 그리고 여기에 한국은 그 대리인으로 충실하게(?) 기독교 식민지 확장에 선봉을 서고 있다. 이것이 '우상숭배 금지,' '하나님나라의 확장,' '땅 끝까지 복음 전도'라는 성경적 가치의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질문>

1. 종교간 대화를 구원의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종교간 이해로 열린 마음으로 볼 것인가? 만약 전자의 입장이라면, 종교간 대화를 수단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내 종교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2. UN의 인권선언문과 WEA의 종교자유를 연동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과 이념적 가치들, 인권 등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선교하다가 대부분 이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보호받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요?

3. 복음주의의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다보면,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충돌하게 되고, 결국 배타적이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까요?

4. 한국에서 복음주의의 대표가 되는 대형교회들의 세습, 권력화, 반공주의, 교회 내부의 부패, 대형 건축, 이웃종교인들에 대한 강압적 개종요구와 침해 등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서, 향후 방향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5. 한국복음주의 안에 많은 교파들이 갈라져 있는데, WEA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설립정신과 지구촌의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민중을 위해 모여질 수 있는 것인지요?